

고호도 배전

이 직사각형 건물은 엔교지 절 오쿠노인(奥之院)의 반대쪽에 있는 중정을 끼고 서 있는 고호도에 모셔진 두 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두 고호도의 배전(拜殿)(참배자가 공물을 바치거나 제사를 지내는 건물)으로서의 역할에 더해, 이 건물은 의식에 사용되거나 인접한 가이산도(開山堂)를 방문하는 순례자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.

1589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절과 신사 건축 양식을 융합한 것으로서, 절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2세기의 전설적인 승병이며 7세부터 10세까지 쇼샤잔 산에서 수행을 했던 무사시보 벤케이(1155~1189)가 학문을 닦은 곳이었다고 합니다. 벤케이가 사용했다고 하는 실제 책상은 엔교지 절 지키도(食堂)의 2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

일본의 신사는 일반적으로 ‘본전(本殿)’과 ‘배전(拜殿)’의 두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고호도의 경우 신이 모셔진 본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쌍의 건물이 고호도(護法堂)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이 건물들에는 엔교지 절의 수호신인 오토텐과 와카텐이 각각 모셔져 있습니다. 일반적인 배전이 본전 앞에 배치되어 있는 데 비해 고호도의 배전은 중정을 끼고 완전히 독립된 장소에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.